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 학생이 졸업학점이 졸업 요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현장에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변하는 점

우선 기존에는 학교 수업일수의 2분의 이상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는 3년간 192점 이상의 학점도 함께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는 수업이 종료되면 과목 이수가 인정됐지만 고교학점제는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평가 결과인 학업 성취도 40%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이 16회 진행이 되면 1학점 수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점 수업이라고 할 때 총 48회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학생은 48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2회 이상의 출석을 해야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학교가 전해 준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공부했다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별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와 함께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습의 장이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학습공간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교 학점제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공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생별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들을 편성해 두고 있는데요. 입학한 신입생의 3년간 교육과정 편성을 미리 수립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과목을 직접 선택한다는 것이 학생에 따라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다면 과목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 설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과 각 교과별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이수지도 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진로진학 상담뿐만 아니라 과목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목 이수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학점이 3년간 192 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게 됩니다.

공통과목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올해 1학년 학생들은 곧바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학년 시기에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기초 소양이나 기본 한력 함량을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과목이 공통 과목들이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과목 및 과목 선택 안내

그래서 학생이 2학년이 되면 비로소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1학년 시기에는 공통과목 이수와 함께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3, 4월 경에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나의 진로와 관심 분야 등을 탐색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진로 적성 검사와 진로 학업 상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5, 6월 달 정도에는 학생들이 과목을 탐색하고 과목 이수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2학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수하게 될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택 과목에 대한 가수요 조사 성격의 1차 희망 조사도 실시됩니다.

이렇게 1학기 말에 해당되는 7, 8월 달이 되면 과목 이수 설계를 구체화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다양한 과목 안내가 계속 이루어지고 선택 과목에 대한 2차 희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구체화해서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2학기 한 11월 정도가 되면 학생들은 선택 과목들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과목 결정을 위한 이런 과정들은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시기에도 3학년 선택과목 결정을 위한 어떤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시간표를 스스로 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셨을 텐데요.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이 특정 시간에만 개설되어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마치 대학교처럼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시간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편성되어 있고 시간표 상의 과목 배치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수요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교가 마련해 놓은 시간표 중 해당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찾아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는 진로 학업 설계가 중요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은 앞서 고교학점제 개우 설명해 들으셨다시피 대부분 공통 과목 중심으로 구성이 되며 국어 그리고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과목들은 2, 3학년에서 선택할 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학년에 편성된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진로 학업 설계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강과목 결정 및 진로 탐색에 대한 도움

진학할 학과나 진로 계열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 할지 궁금하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함께 학교 누리집에 이 플래너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학교 누리집에 이 플래너를 활용하면 우리 학교에 자 3개년간 과목 편성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토대로 시간표를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진로 탐색 또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학과 진로 검사 등에 진로 검사 등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검색창에 함께 학교를 입력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togetherschool.go.kr 입력하시면 함께 학교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터디 카페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함께 어이 플래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자 현지 고등학교 교사 400여명으로 구성된 진로 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과목 선택 및 교육 과정 설계 교과지도 학습 코칭 등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함께 학교 누리집에 접속해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이 플래너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컨설팅 있죠 컨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진로 학업 설계 지원단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말고 이외에도 원래 학교에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들께도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수할 과목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 이후인 5월을 전후 2학년에서 이수할 과목의 주요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1학년 내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충분히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수할 과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3학년에서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뭐 수강신청 변경 기간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기간이나 그리고 기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학년 교육과정

1학년에서 공통 과목 중심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2, 3학년에 어떤 과목이 편성되는 살펴보겠습니다. 각 학교는 학교의 전통과 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학교의 교원과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학교에 2025학년도 입학생 다시 말하면 올해 1학년 학생들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 편성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학년은 모두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그리고 3학년에는 학생 선택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 이렇게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그리고 사회, 한국사, 사회, 과학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공통 국어가 1학기 4 2학기 4 뭐 공통 수학이 1학기 4 2학기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뭐 4시간 수업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학점이 되는 거죠. 학점은 주당 1시간 수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체육 과학탐구실험도 있었네요. 체육 그리고 음악 미술 그리고 정보와 한문도 있는데요. 여기 음악 미술 정보 한문에 보면 학기 교차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학년 학생 전체 중에서 1부 학생은 1학기의 음악을 듣고 2학기의 미술을 수강하게 되며 또 나머지 말은 1학기에 미술 수강하고 2학기 음악을 수강하게 되어 결국 모든 학생이 1학년 때 음악과 미술 이수하는 것이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학년 과목 한번 보실까요. 선택과목 편성된 2학년에 어떤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에 보시면 문학 대수 미적분 원 영어원 세계 시민과 지리 동아시아 역사기행 사회와 문화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13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3이 여덟 개가 있죠. 이 얘기는 바로 3학점 여덟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렇게 24하 괄호 택 8 이렇게 보여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 세과목을 여덟 과목 이수하는 거니까 24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택 과목이 여덟 개나 된다고 너무 많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안내를 받으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범위 과목이나 아니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선택권 B 보시면 일본어 중국어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세 개 과목이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3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네 바로 한 과목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하고 택 1 이렇게 보여주는 편성표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3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설계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때가 되어서 직접 학생이 선택해서 과목을 듣게 되는 거네요. 5, 6월에는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9, 10월경에는 1차로 수강 시청을 하게 되고 11월쯤에 그 수강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학점 이수 기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과거처럼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학점을 이수할 수도 없고 졸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석만 아니라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갖추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다르게 학점 이수 기준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출석 일수 기준만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해서 일부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습 결손 누적 예방에 대한 국가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과목별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연 얼마나 출석해야 하고 학업 성취율 어느 정도 이상되어야 할까요? 출석은 과목 수업 횟수에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40% 성취율 의미가 궁금하시죠 절대평가로 성취도는 a b c d e 5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성취도 e가 성취율 40%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과목별로 성취도 e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점당 1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므로 4점짜리 공통 과목은 수업을 보통 64시간 실시합니다. 앞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출석률은 수업 횟수에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4점짜리 과목의 경우 총 64시간 수업 횟수에 3분의 2인 43시간 이상을 출석하고 40% 이상 성취를 얻을 경우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점을 어떻게 해야 이수할 수 있는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학점을 얻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을 졸업시키기 어렵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적이기 때문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학업 성취이자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그러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추가 지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의 책무성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 제도라도 갑자기 적용되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올해 갑자기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만큼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들이 40% 미만의 성취율 보여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 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말 평가 이후 실제로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에게는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면 보충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수업을 들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까요 한 학점당 다섯 시간의 보충 지도가 실시되는데 반드시 모두 참석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충지도 실시 회수에 2/3 이상을 참여하면 됩니다. 좀더 쉽게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전에 한학 점당 다섯 시간의 보충 지도가 실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4점짜리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총 20시간에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총 20시간의 보충지도 실시 횟수 중 2/3 이상을 참여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시간 중분 2/3에 해당되는 14회 이상 보충 지도에 참여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 안에 이를 기재하고 보충지도 여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석을 부족으로 학점 이수 조건에 미도달 학생에게는 추가 학습이 제공되는데요. 이때 추가 학습을 이수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문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성취도 B를 받았으나 출석률이 부족해서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뒤 추가 학습을 이수하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 란에 학생이 성취한 성취도에 B가 입력되고 비고란에는 출석을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이수가 기록됩니다. 따라서 학부인께서는 자녀가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의 수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일부 학부인께서는 자녀가 만약 보충 지도를 받는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충 지도는 대면 수업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선생님이 안내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거나 숙제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학습 멘토링을 받아도 보충 지도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과목별 특성과 학생별 특성을 고려해서 보충 지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믿고 자녀가 책임감 있게 학습에 참여하도록지도 주시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